

# 老人의 概念規定과 特性에 관한 研究

韓 昌 榮\*

## 目 次

- I. 序 論
- II. 老人의 概念規定
  - 1. 老齡規定上의 問題點
  - 2. 老齡規定 方法論
- III. 老人의 特性
  - 1. 生物學的 特性
  - 2. 社會·心理的 特性
  - 3. 住居形態로 본 特性
  - 4. 老人文化로 본 特性
- IV. 結 論

## I. 序 論

필자는 어려서 이런 수수께끼를 들은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네발로 기어다니다가, 다음에는 두발로 걷고 나중에는 세발로 다니는 동물이 무엇이나라는 수수께끼였다. 처음 들릴 때는 신기해 보였지만 그 답을 알고나니, 그것이 바로 필자 자신의 人生歷程임을 헤아려 볼 수 있었다. 그렇다. 세발로 다니게 되는 것이 바로 老境이랄 수 있다. 그 老境에 있는 사람을 通稱 老人이라 하거나 그렇게 흔히 쓰여지고 있는 “老人”을 어떻게 概念規定하느냐에 관하여서는 여러가지 見解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老人에 대한 概念을 규정해 보고, 다음으로 老人은 도대체 어떤 特性(Merkmal)을 갖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즉 老人의 特性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老人의 特性을 把持한다는 것은, 老人을 觀察하거나, 老人에 대해서 直接·間接으로 關心을 갖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老人 自身들에게도 老人이라는 identity를 確認하며 把握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老人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回答을 주어보려는 한가지 試圖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法政大學 行政學科

## II. 老人의 概念規定

老人이란 概念을 嚴密하게 規定한다는 것은 簡單하게 보이면서도 實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學界에서도 아직은 이 問題에 대해서 完全한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렇게도 이 定義問題가 어려운 까닭은 老人이란 概念이 單純히 나이만을 가지고 定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老人에 대한 概念은 한 國家와 社會의 經濟, 社會, 文化的인 背景 및 與件에 따라 差異가 있으며 學者에 따라서 그 理論的인 定義도 다르다. 그러나 根本的인 概念에는 별 差異가 없다.

于先 1951年 國際老年學會(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에서 發表된 定義를 보면, 老人이란 「人間的 老齡化 過程에서 나타나는 生理的, 心理的, 情緒的, 環境的 및 行動의 變化가 相互 作用되는 複合形態의 過程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細分하면 老人이란 :

- ① 環境變化에 適切히 適應할 수 있는 自體組織에서 缺陷을 가진 사람
- ② 自身을 統合하려는 能力이 減退되어 가는 時期에 있는 사람
- ③ 人體의 器官, 機能에 衰退現象이 일어나는 時期에 있는 사람
- ④ 生活體의 適應性이 精神的으로 缺損되어 가고 있는 사람
- ⑤ 組織 및 機能貯藏의 消耗로 適應 減退現象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

또한 C. Tibbitts의 定義에 의하면 老人이란 :

- ① 生理的, 肉體的으로 變化期에 있는 사람
- ② 心理的인 面에, 個性(Personality)의 機能이 減退하고 있는 사람
- ③ 社會的 變化에 따라서 社會的인 關係가 過去에 屬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sup>1)</sup>

이와같이 「老人」自體를 概念 規定하는가 하면 老齡을 準據하여 概念을 把握하는 見解가 있는데 이를 中心으로 老人에 대한 概念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 1. 老齡規定上的 問題點

“老人”이란 무엇이냐? 라는 問題는 매우 어려운 問題이다. 老人의 概念은 多樣하여 簡單히 定義를 내리기는 어렵다. 老年學의 立場에서 보면, 于先 人文, 社會, 自然의 모든 科學을 動員하여 追求되어야 할 終局的인 課題인 것이다.<sup>2)</sup>

이와 더불어 當面하는 問題는 “老年期”란 무엇이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老年期라고 하고 따라서 老人이 되는 始期를 어디에다가 定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老人의 “老齡線”을 어디에다가 긋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通俗的으로 보는 見解와 老年學的으로 考察하는 方法이 있다. 먼저 通俗的인 見解를 살펴보면, 還甲年이란 것이 있다. 그런데 還甲年은 單純한

1) 金玄操, “老人問題와 社會政策”, 「社會福祉」通卷54號,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77, pp.10~11.

2) 玄斗日, “韓國老人의 生活構造에 關한 司會學的 研究”, 「建大學術誌」第20輯, 건국대학교, 1976, p.474.

曆年計算으로 定하는 것이지만, “還甲” 自體는 文化的 意味를 지니고 그 背後에는 人間이 一生을 成長과 發展에 따라 段階的으로 나누어 본다는 意圖가 가로 놓여 있다. 돌, 冠禮, 古稀, 養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社會의 경우이고, 一般的으로 幼年期, 少年期, 青年期(前期, 後期), 壯年期(初老, 中老, 末老) 등 또는 10代,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등으로 나눈다.

이제 老年學의 立場에서 老齡期를 살펴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① 自身の 主觀的인 老齡意識과 客觀的인 事實과는 언제나 一致한다고 볼 수 없는 것.
- ② 모든 組織이나 器官이 一律的으로 老化하는 것이 아니며, 그 한 例로, 性的 能力 같은 것은 金제이 報告에 따르면 10代에 成熟하여 절정을 보이며 그 後 漸進的으로 後退하는 데, 이와는 달리 어떤 組織이나 器官은 40歲 이후에야 絶頂에 달하여 그후 漸進的으로 後退하는 것도 있어 그 始作時期가 一律的인 것이 아님.
- ③ 모든 組織, 器官 및 機能의 老化速度가 같지 않고 빠른 것은 빠르고, 느린 것은 느려 各樣各색임.
- ④ 老化의 個人的 差는 極히 큼.  
이상과 같은 것들이 問題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老齡規定方法論

老齡을 規定짓는 方法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方法,

① 物理的 時間으로 機械的 形式的으로 測定된 老齡에 의해 몇살 이상으로 規定짓는 卽 生活年齡에 의하는 方法

② 心身の 機能 變化(生物學·醫學的으로 心理學的으로, 또 社會學的으로)에 따라 老化現象이 어느 段階에 이른 것을 老齡으로 看做하는 實體的인 方法 즉 機能的 年齡에 의하는 方法이 있겠는데 機能的 年齡에 의하는 實體的인 方法이 가장 合理的인 것으로 생각되나 老化現象의 進行의 程度에 의하는 方法은 그 測定基準에 대한 結論이 그리 쉽게 내려질 것이 못되므로 困難하며 따라서 不得已 가장 普遍的으로 利用되고 있는 生活年齡을 그 尺度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事實 生活老齡이란 사람에 따라 各人各색의 意味를 갖는 것인데 그것을 萬人에게 一律的으로 꼭 같이 適用된다는 것은 극히 非合理的인 處事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sup>3)</sup>

다음으로 老齡에 관한 規定과 老齡期에 관한 見解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 老齡의 規定

上述한 老齡規定方法에 의해서 老齡을 規定하여 보고자 한다.

### 가. 形式的 方法

이는 曆年齡(Chronological age)을 標準으로 삼는 것으로서 俗稱 “세는 나이”가 그것이다. 그런데 曆年은 단지 物理的 機械的인 時間으로서 그것으로 定해지는 曆年齡은 人間의 老化過

3) 金相圭, 「老人福祉의 體系的 研究」, 大邱: 慶北大學校出版部, 1976, pp.23~24.

程과 一致하지 않는다. 人間의 老化過程은 個人差가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曆年齡으로서는 “還甲年”을 滿 60歲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 機能的 方法

이 方法에 따르면, 老齡期와 그 老齡線의 背後에는 社會, 文化的 與件이 도사리고 있음을 認定하는 立場에서 老人을 단지 心理學이나 生物學的으로 把握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社會的 存在로서도 把握하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分野에 대해서 “社會學的 觀點”으로 老年齡을 考察하려는 傾向이 濃厚한 것 같다.

다음에 社會的 觀點과 心理學的 觀點으로 나누어 考察하려 한다.

다. 老齡의 規定

1) 社會學的 觀點

社會學的 觀點에서 規定하려는 試圖는 아직 初步的 段階에 있거니와 몇가지 見解를 살펴보기로 한다.

(1) 大道安次郎의 見解

大道安次郎의 持論에 있어서 問題의 焦點은 停年制에 있다.

大道安次郎은 現代産業社會에서의 老人의 老齡線은 停年制에서 찾아야 한다고 主張한다. 停年制가 지나는 社會的 意味는 社會生活의 第1線의 活動에서 隱退한다는 것을 制度的으로 社會가 認定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現代社會에서 停年制를 두고 論할 때에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적지 않다.

첫째로, 停年制는 대체로 高齡者에 適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曆年齡이 一定하지 않다는 것이 現在의 實情이다. 따라서 停年制를 갖고도 明確하게 老年線을 그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點이다.

둘째로, 現代의 停年制는 주로 職業에 從事하는 男性에게 適用되는 것이며, 大部分의 職業이 없는 女性에게는 適用되지 않는다.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서도 大道安次郎은 첫째의 疑問에 대해서는 勿論 停年制는 高齡者에 適用한다는 意味에서는 曆年齡과도 관계가 있으나 반드시 曆年齡을 基準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社會的 地位, 役割, 身分 등 機能的 見地에 重點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둘째의 疑問에 대하여는 現代社會에서는 夫婦의 社會的 地位와 身分은 表裏의 관계에 있고, 男便의 社會的 地位나 身分의 變化는 그대로 妻에게도 反映된다. 그렇기 때문에 男便의 停年은 그대로 妻의 停年을 意味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2) 玄斗日의 見解

玄斗日은 停年制를 定義하여 “現代産業 社會에서 勤勞者의 最終的인 年齡段階에 課하는 하나의 社會的 處遇의 形式”으로 본다.

歷史적으로 볼 때에 殺老나 棄老 또는 隱居制, 停年制, 年金制 등 모두가 때와 場所에 따라 發生한 時代的 產物이고 老人處遇의 한 形式들인 것이다. 隱居制만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全體社會에 一般化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實際에 있어서는 隱退하고 主導權을 子息에게 讓與하는 時期나 節次도 伸縮性이 있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停年制도 社會的 經濟的 基礎나 全體體制와도 有關한 것이므로 豫測하기는 어려우나 産業社會의 高度한 進展에 따라

4) 玄斗日, 前掲論文, p.476.

더욱 一般化될 可能性은 크다. 與件의 變動에 따라서는 停年制의 性格 自體가 變質될 수도 있고 隱居制나 還甲처럼 時代的 遺習으로 現實에 어울리지 않는 때도 올 수 있겠다.

巨視的인 眼目으로 볼 때에 停年制는 亦是 老人과 老年線을 찾는 指標로서 繼續 注目하고 研究해야 할 據點이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老人問題란 國民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勤勞階層의 老後에 관한 問題이고, 停年制는 그들의 社會的 處遇에 관한 것이므로 피할 수 없는 歧路에서 있는 問題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停年退職 年齡이 55歲 前後가 支配的이므로 年金年齡과의 사이에 5年 내지 10年의 거리가 있다.<sup>5)</sup>

그런데 1979년부터 55歲 이하의 技能職 公務員에 한해 停年이 3年 延長되었다.<sup>6)</sup>

結論으로 玄斗日은 停年の 始期를 60歲로 보고 있다.<sup>7)</sup>

### (3) 金相圭의 見解

金相圭는 老齡規定 年齡을 暫定的인 提案으로 60歲~65歲로 정하면서 그 理由 및 根據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列舉하고 있다.<sup>8)</sup>

① 社會的인 見地에서는 社會的 活動에서 물러난 사람을 老人으로 볼 수 있으므로 日本과 같이 55歲 停年制가 壓倒的인 社會에서는 55歲로, 그리고 歐美社會와 같은 65歲 停年制에서는 65歲를 老齡 年齡으로 봄이 妥當하겠고,

② 日本 民法上의 隱居年齡은 60歲이며,

③ 韓國에는 “還甲지념”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所用이 없는 古物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에 따르면 還甲 즉 60歲가 그 基準이 될 수 있으며,

④ 日本의 諸制度上의 規準을 보면,

○ 厚生年金은 60歲

○ 國民年金은 65歲

○ 老人福祉法에는 65歲

○ 老人俱樂部 加入年齡은 約 60歲 등이 該當年齡으로 되어 있고,

⑤ 老人의 象徴으로 볼 수 있는 祖親性(祖父母가 되는것)의 役割이 56歲頃에 可能하게 되었으며,

⑥ 韓國에 있어서 大韓老人會 加入年齡은 56歲頃부터로 되어 있다.

⑦ 그런가 하면 世界 어떤 地域(印度 같은 곳)에는 平均壽命이 아직도 40代나 50代에 머물러 있으므로 넓게 國際的인 見地에서는 그 規定年齡을 너무 높일 수만 없고,

⑧ 甚한 個人差를 勘案하여 그 多樣性을 무마하고, 또 여러 가지 調査目的에 따른 伸縮性을 圖謀하는 見地에서 등이다.

### 2) 心理學的 觀點

老人에게 일어나는 生理的 現象은 必然的으로 人間의 精神的 構造에 變化를 惹起시키게 되며 年齡이 進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心理的 特性이 顯著해 진다.

5) 玄斗日, 前揭論文, p.478.

6) 朝鮮日報, 1978.2.2.<1>

7) 玄斗日, 前揭論文, p.490.

8) 金相圭, 前揭書, p.62.

- ① 健康 및 經濟上의 不安定에 대한 煩悶
- ② 猜疑心, 嫉妬心の 強化
- ③ 興味減退, 非活動性, 內閉性 傾向의 增大
- ④ 保守的, 頑固, 孤獨感
- ⑤ 不潔, 貪慾

이상과 같은 心理的인 變化는 모든 사람에게 同時的으로 急激하게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一般的인 生理的인 現象에 依한 肉體的 變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精神的 機能의 衰退도 사람에 따라 時間的으로 隔差가 있다.

다음에 心理的인 面에서 主觀的 老人意識과 客觀的 老人意識에 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前者는 老人 自身이 老化를 自覺하는 것을 말하며 後者는 靑壯年의 것이다.

도대체 人間은 몇살쯤에서 부터 “늙음”을 自覺하고 “老人”임을 自認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關心事이다.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調査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1972년에 河相洛이 調査한 바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本 調査對象者가 나타낸 老人의 年齡的 區分에 對한 反應을 보면 <表Ⅱ-1>에 나타남과 같이 59歲 未滿의 者에 있어서는 60歲 以後를 老人으로 생각하는 率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60歲 以上의 老人層에 있어서는 70歲 以後를 老人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6.4%의 높은 率을 보이고 있다.

<表Ⅱ-1> 老人이라고 생각되는 年齡

年 齡 區 分	59歲未滿의 一般人		60歲以上の 老人	
	人 員 數	比 率	人 員 數	比 率
① 60 歲 以 後	195	49.1%	186	57.8%
② 65 歲 以 後	147	37.1	42	13.0
③ 70 歲 以 後	55	13.9	85	26.4
④ 其 他	-	-	9	2.8
計	397	100.0%	322	100.0%

그리고 <表Ⅱ-2>와 같이 男女性別에 따라 老人規定 年齡에 多少 差異가 있으며 특히 60歲 以後 老人層에 있어, 60歲 以後를 老人으로 看做하는 率은 女子가 男子보다 倍나 더 높은 81.4%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음은 留意할 일이라 하겠다.

9) 河相洛, “가정 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1972), p.5.

〈表Ⅱ-2〉 年齡階層別 및 男女別로 本 老人이라고 생각되는 年齡(%)

年 齡 區 分	25歲未滿의 者		26歲~59歲成人		60勢以上の 老人	
	男	女	男	女	男	女
① 60 歲 以 後	52.0%	52.0%	44.0%	55.6%	45.1%	81.4%
② 65 歲 以 後	32.3	38.2	41.4	27.8	16.7	6.2
③ 70 歲 以 後	15.7	9.8	14.6	16.6	34.9	10.6
④ 其 他	-	-	-	-	3.3	1.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5年에 李英夏가 實施한 調査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表Ⅱ-3〉 參照).

〈表Ⅱ-3〉 老人年齡에 關한 意識 分析

各數, %

問題	分類 區分	世 帶 別		男 女 別		地 域 別		計
		60歲以後	59歲以下	男	女	都 市	地 方	
① 50歲부터		5.75	4.85	3.50	7.58	5.61	5.00	(39) 5.34
② 55歲부터		4.25	6.06	4.25	6.06	3.66	6.88	(37) 5.07
③ 60歲부터		32.00	44.25	39.50	35.15	30.98	45.93	(274) 37.585
④ 65歲부터		38.50	28.48	35.50	32.12	42.92	22.50	(248) 33.97
⑤ 70歲부터		14.50	13.94	12.50	16.36	12.44	16.56	(104) 14.25
⑥ 모르겠다		4.00	2.42	4.25	2.12	3.41	3.13	(24) 3.29
無 應 答		1.00	0	0.50	0.61	0.98	0	(4) 0.55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30) 100.00

10) 李英夏, "韓國社會에 있어서 老人問題와 그 解決을 爲한 方案" 「論文集」第13輯, 公州師範大學, 1975, pp.204~205.

〈表Ⅱ-3〉과 같이 59歲 以下の 사람에 依하면 60歲 以後를 老人으로 보는 데 반하여 60歲 以上 老人들은 65歲 以後를 年齡으로 보고 있어 世代間에 意識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 卽 主觀的 老人意識과 客觀的 老人意識이 差異가 난다는 것이다. 1975년 玄斗日의 調査에 依하면 老人들이 60代 初半부터를 老人이라고 한 比率이 首位를 차지했다.<sup>11)</sup> 따라서 老人들은 60代 初半일 때 “老人”임을 自認하게 되는 모양으로 老人들은 比較的 늦게 “老人”임을 自認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Ⅱ-4〉 老性自覺

設問內容別 區 分		그 령 다		아 니 다		總 計		
		實 數	%	實 數	%	實 數	%	
總 計		191	68.5	88	31.5	279	100.0	
性 別	男	60~64	11	22.0	39	78.0	50	100.0
		65~69	17	43.6	22	56.4	39	100.0
		70~74	19	82.6	4	17.4	23	100.0
		75~79	19	90.5	2	9.5	21	100.0
		80~	7	100.0	-	-	7	100.0
		計	73	52.1	67	47.9	140	100.0
	女	60~64	26	63.4	15	36.6	14	100.0
		65~69	33	86.8	5	13.2	38	100.0
		70~74	20	95.2	1	4.8	21	100.0
		75~79	22	100.0	-	-	22	100.0
		80~	17	100.0	-	-	17	100.0
		計	118	84.9	21	15.1	139	100.0
配偶者	有	68	50.7	66	49.3	134	100.0	
	無	123	84.8	22	15.2	145	100.0	
階 層	上	14	48.3	15	51.7	29	100.0	
	中	119	69.6	52	30.4	171	100.0	
	下	58	73.4	21	26.6	79	100.0	
職 業	有	46	54.1	39	45.9	85	100.0	
	無	145	74.7	49	25.3	194	100.0	
學 力	文 盲	86	93.5	6	6.5	92	100.0	
	한글·國卒	78	70.3	33	29.7	111	100.0	
	中·高卒	23	34.3	44	65.7	67	100.0	
	大 卒	4	44.4	5	55.6	9	100.0	
地 域	都 市	114	63.3	66	36.7	180	100.0	
	農 村	77	77.8	22	22.2	99	100.0	

11) 玄斗日, 前掲論文, p.480.



또한 傾向性으로는 配偶者가 없는 사람은 配偶者가 있는 사람보다, 無職者는 有職者보다, 學力이 낮은 사람은 學力이 높은 사람보다 老年線을 낮게(低) 보는 傾向이 있다.

한편 都市와 農村에서는 60歲 初半線에서 農村이 약간 일찍 보고 있다.<sup>12)</sup> <表Ⅱ-4> 參照. 主觀的 老人意識에 關한 本格的인 研究로는 全宰一의 研究가 있는데 그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sup>13)</sup>

- ① 女子가 男子보다 老人으로서 自己 概念이 더 일찍 나타났다.
- ② 生活程度가 낮을수록 老人으로서 自己概念이 더 일찍 나타났다.
- ③ 老人으로서 自己概念의 身體的 要因은 視力의 衰退, 毛髮의 衰退(脫落 또는 白髮), 齒牙의 脫落의 順으로 重要視되었다.
- ④ 老人으로서 自己概念의 精神的 要因은 精神的 機能의 低下, 子女의 成長과 孫의 出生, 他人의 老人이라고 評價하는 順으로 重要視되었다.
- ⑤ 老人으로서 自己概念의 精神的 要因中 養老院이나 老人과 같은 施設에의 收容이 가장 重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客觀的 老人意識에 關하여 玄斗日의 調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Ⅱ-5> 靑壯年이 본 老年線

區 分		나 이	50~54	55~59	60~64	65~69	70~74	75以上	總 計	
									實 數	%
總 計			4.8	7.0	49.7	18.9	19.6		286	100.0
性 別	男	20~29		6.3	56.3	18.7	18.7		16	100.0
		30~39	6.1	6.1	47.0	20.4	20.4		49	100.0
		40~49		7.1	47.6	26.2	19.1		42	100.0
		50~59	5.1	5.1	38.5	23.1	28.2		39	100.0
		計	3.4	6.2	45.9	22.6	21.9		146	100.0
	女	20~29		6.2	62.5	18.8	12.5		16	100.0
		30~39	8.5	6.4	44.7	19.1	21.3		47	100.0
		40~49	9.1	6.8	52.3	13.6	18.2		44	100.0
		50~59	3.1	12.1	63.6	9.1	12.1		33	100.0
		計	6.4	7.9	53.6	15.0	17.1		140	100.0
階層別	上		4.3	4.3	60.9	8.7	21.8		23	100.0
	中		5.1	5.1	43.7	23.8	22.3		197	100.0
	下		4.6	13.6	63.6	7.6	10.6		66	100.0

12) 玄斗日, 前掲論文, p.481~482.

13) 全宰一, "老人으로서 自己概念의 時期와 要因에 關한 研究", 「老人福祉研究」, 韓國社會事業大學, 老人福祉研究所, 1978, pp.19~20.

學力別	문	맹	13.3	6.7	66.7	13.3			15	100.0
	한	국 · 국	7.9	9.0	58.4	10.1	14.6		89	100.0
	중	졸	7.0	10.6	45.6	22.8	14.0		57	100.0
	고	졸		1.7	49.1	24.6	24.6		57	100.0
	대	졸	1.5	5.9	38.2	23.5	30.9		68	100.0
地域別	도	시	3.7	8.1	44.6	21.0	22.6		186	100.0
	농	촌	7.0	5.0	59.0	15.0	14.0		00	100.0

〈表Ⅱ-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靑壯年層에서는 大部分 60歲가 되면 老人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靑壯年層에서는 모두 60代 初半을 老年線으로 指摘하는 比率이 많다. 低學力層에 내려갈수록 보다 낮게 보는 傾向이다. 또 都市보다 農村이 낮게 보고 있다.<sup>14)</sup>

### 3) 綜合的인 考察

老齡과 規定에 關해서 綜合的으로 考察하면, 于先 그 接近方法으로서 形式的 方法과 機能的方法으로 大別하여 考察했다. 前者는 曆年齡으로 滿 60歲를 假定하였다. 後者로서는 社會學的 觀點과 心理學的 觀點으로 區分하여 社會學的 觀點으로 大道安治郎의 見解, 그리고 金相圭의 見解를 살펴봤으며 心理的 觀點으로서 亦是 玄斗日의 調査에 따라, ① 主觀的 老人意識 그리고 ② 客觀的 老人意識의 老年線에 關하여 살펴봤다.

무릇 河相洛, 李英夏, 玄斗日, 全幸一 등의 實證的 研究는 많은 示唆를 주고 있거니와 金相圭의 老年線은 60±5로서 相對性을 보여주고 있는 點이 特色이라 하겠다.

以上 여러가지 觀點으로 미루어봐서 共通的인 것은 60歲의 老年線이라 할 수 있겠으나 平均壽命의 延長(1975년에는 68歲로 되었다) 또는 停年의 延長 등을 勘案하지 않을 수 없다.

老人을 普通 65歲 이상으로 잡고 있으나 平均壽命의 延長, 醫學的 發達, 公衆 및 環境衛生의 改善, 生活水準의 向上 등으로 因해서 老人始初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生理的으로 心身衰退가 나타나는 時期라 한다면 그 年齡은 대략 70歲 前後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多數說이다. 그러나 60歲 또는 65歲에 이미 老衰期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sup>15)</sup>

한편 우리 나라는 아직 平均壽命이 68歲線에 머물고 있음을 勘案할 때 환갑인 60歲 또는 그보다 5年後인 65歲부터를 老人으로 規定짓는 것에 妥當性을 認定하는 見解도 있다.<sup>16)</sup> 따라서 65歲를 老年線으로 假定해 두고자 한다.

### 라. 老齡期에 관한 規定

이제 老齡期에 關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Otto Pollak도 指摘했듯이 폭 넓은 老年期(約 30餘年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함)을 Unitary period(單一世代)視 함에는 無理가 있고, 同年輩 老人間에도 個人差가 있을 수 있으며, 더우기 60代 老人과 80代 老人間에는 더 큰 個人差가 있을

14) 玄斗日, 前掲論文, p.482.

15) 邊時敏, 「社會政策·社會開發」, 서울:博英社, 1975, p.259.

16) 朴在侃, 「老人敎科書」, 서울:韓國老人問題研究所, 1977, p.203.

可能性에 비추어 老齡期에 對한 適切한 老齡區分이 必要한 것으로 본다.<sup>17)</sup> 한편 老人問題의 研究에 있어서 老齡期를 問題삼는 理由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近來에 와서 老人의 壽命이 延長되어 老齡期가 매우 길어졌는데 이 期間에는 家族週期의 觀點에서나 對社會的인 面에서나 老人의 身上에 段階的으로 變動이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것을 無視하고 一律的으로 “老人”이라고 斷定하고 研究할 수는 없다.

둘째로, 이와 같은 變動은 居住形態의 變化와 老人扶養의 形式과도 깊이 相關하고 있기 때문에 老年期를 段階的으로 區分해서 研究할 必要가 생긴다. 우리와 社會文化的인 차이가 심한 歐美의 境遇는 比較가 困難하고 與件이 비슷한 日本의 例를 보건데 그것도 各者마다 이렇다 할 根據없이 제 나름대로 區分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參考할만한 것을 두 가지 들어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見解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8)</sup>

1) 塚本 哲의 分類

- |         |         |
|---------|---------|
| ① 後期壯年期 | 55歲~65歲 |
| ② 向老期   | 65歲~70歲 |
| ③ 老年前期  | 70歲~75歲 |
| ④ 老年中期  | 75歲~80歲 |
| ⑤ 老年後期  | 80以上    |

2) 那須宗一의 分類

- |        |         |
|--------|---------|
| ① 向老期  | 60歲~64歲 |
| ② 初老期  | 65歲~69歲 |
| ③ 老年中期 | 70歲~74歲 |
| ④ 老年後期 | 75以上    |

3) 玄斗日의 分類

- |        |         |
|--------|---------|
| ① 初老期  | 60歲~64歲 |
| ② 中老前期 | 65歲~69歲 |
| ③ 中老後期 | 70歲~74歲 |
| ④ 末老期  | 75歲以上   |

4) 金相圭의 分類

- |        |         |
|--------|---------|
| ① 老年初期 | 56歲~65歲 |
| ② 老年中期 | 66歲~75歲 |
| ③ 老年後期 | 76歲以上   |

以上 4가지 分類法을 紹介하였거니와 1)의 경우 55歲~65歲를 後期壯年期라고 하고 65歲~7

17) 金相圭, 前掲書, p.27.

18) 韓昌榮, 「濟州道老人論攷」, 濟州: 韓一文化社, 1978, pp.40~41.

0歲까지를 向老期라고 함은 70歲까지도 老人이 아니라는 말로 理解가 되므로 이것을 우리 社會의 平均 壽命에 비추어 볼 때에 韓國人은 老人도 되기 前에 大部分 死亡한다는 것이 되겠다. 2)의 境遇는 차라리 우리 社會의 實情에 가깝다. 玄斗日이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60歲~64歲를 “向老”라고 表現하기에는 無理가 있어 보인다. 3)의 玄斗日의 分類는 亦是 2)에 關한 批判이 60歲~64歲의 境遇에 適用되겠다. 4)의 金相圭의 境遇는 金相圭가 老齡線을 65±5로 設定한 以上 應當 그렇게 分類를 始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나 55歲~60歲의 期間은 60歲를 老齡線으로 假定할 때 問題가 생긴다.

5) 本 論에서는 老齡期를 다음과 같이 두고자 한다.

- |        |         |
|--------|---------|
| ① 老年前期 | 65歲~74歲 |
| ② 老年後期 | 75歲~79歲 |
| ③ 高齡期  | 80歲以上   |

### Ⅲ. 老人의 特性

老人의 特性論은 그 視角에 따라서 뉴앙스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老年醫學(geriatrics)에서는 老人의 生物學的 特性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른바, 社會的 老年學(social gerontology)에서는 社會·心理的 特性을 강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위 두가지 側面에서 강조하는 混合型의 特性論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老人의 特性論에서는 生物學的 特性과 社會·心理的 特性의 두가지가 擧論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生物學的 特性과 社會·心理的 特性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老人의 居住形態로 본 特性과 老人文化라는 視角에서의 特性論을 試圖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1. 生物學的 特性

老人의 生物學的 特性을 接近하기 위해서는 먼저 老化(aging)에 관한 學說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見解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老化의 事實을 규정하는 概念으로서 ① 普遍性(Universality), ② 本質性(Intrinsicity), ③ 進行性(Progressiveness), ④ 有害性(Deliteriousness)을 열거하기도 한다.<sup>19)</sup>

##### 가. 老化에 관한 學說

老化(aging)에 관한 學說은 多樣하거니와, 다음에 여러 학자들의 見解를 소개하기로 한다.

##### 1) 宇治谷義雄의 見解

宇治谷義雄은 老化에 관한 學說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20)</sup>

(가) 消耗說, (나) Rate of living說, (다) 스트레스說, (라) 有害物質蓄積說, (마) 遊離基說, (바) cross-linking說, (사) 體細胞變異說, (아) 過誤說, (자) 自己免疫說.

그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學說을 소개하면서, 위 學說들은 각각 老化現象의 一部를 보고

19) 韓昌榮, “韓國老人福祉의 行政과 法制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79, p.46.

20) 宇治谷義雄, 「老人福祉入門」, 東京:川島書店, 1979, pp.21~23.

있는 것에 불과하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과 같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들 학설들은 서로 排他的인 것이 아니라, 相互補完하면서 복잡한 老化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見解를 一目瞭然하게 試圖化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原文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 <表Ⅲ-1>과 같다.<sup>21)</sup>

<表Ⅲ-1> 老化學說概要

老化學說	提唱者	年代	概 要
消 耗 說 Wear and tear theory			古くから提唱されている説 生体の形態や機能が物質が擦り減らされていくように消 耗されてゆくという考えに基づく。
rate of living說	Pearl	1928	老化とは、發育初期に与えられる“生活物質”を代謝過 程において徐々に消費することである。
Stress說	Selye	1960	老化とは、生来もっている適応作用を替むエネルギーを ストレスにより消耗する過程である。
プログラム說 Program theory			老化は細胞内の遺伝子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あらかじめ プログラムされている。
代謝産物原因說 The waste product theory	Möhlmann	1900	細胞代謝の結果、発生した産物が細胞内に沈着し、蓄積 されて細胞の機能が障害されて老化をきたす。代表的な ものとしてリポフスチン。
遊離基說 Free radical theory	Harman	1956	遊離基は、分子の中で不安定な一部を形成して核酸や核 蛋白質などと反応して過酸体に変化し、その結果、細胞障 害をきたし老化をおこす。
架橋結合說 Cross-linking theory	Björkstén	1962	コラーゲンその他の蛋白質分子間の架橋結合が増加、代謝 の低下をきたし老化をおこす。
體細胞變異說 Somatic mutation theory	Curtis	1963	體細胞が内的、外的原因で染色体異常や突然変異をおこ し、これが正常な機能を阻害して老化をおこす。放射線 による染色体増加と寿命の短縮はその根拠。
誤り說 Error theory	Medvedev	1966	DNA, m-RNA, 蛋白質などの複製の際に、ある率で誤りを 生じ、その蓄積が老化を招く。
自己免疫說 Auto immune theory	Walford	1962	体内の蛋白質が何らかの原因で異種となったり、あるいは 自己蛋白質に対し誤って抗体ができることにより老化をき たす。 老年期に入るとγ-グロブリンがまったり、アミロイドー ジスが老人に多いことなどが根拠。

2) 張仁協·崔聖載의 見解

張仁協과 崔聖載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22)</sup>

21) 長谷川和夫·霧山德爾, 「老年心理學」, 東京: 岩崎學術出版社, 1979, p.9.

22) 張仁協·崔聖載, 「老人福祉學」,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pp.52~54.

생물학적 노화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20여개 이상이나 있는데 이 이론들은 ① 遺傳的 理論(genetic theory of aging), ② 非遺傳的 細胞理論(nongenetic cellular theory of aging), ③ 免疫學說(immunological theory of aging), ④ 生理的 統制理論(physiological control theory of ag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며 각각의 理論에 속하고 있는 學說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가) 遺傳的 理論 : (1) 豫定計劃理論, (2) DNA作用過誤理論

(나) 非遺傳的 細胞理論 : (1) 使用磨耗理論(wear-and-tear theory), (2) 老廢物 蓄積理論(waste-product theory), (3) 交叉連結理論(cross-link theory), (4) 身體的 變異理論(somatic mutation theory),

(다) 免疫理論 : (1) 免疫反應理論(immune reaction theory), (2) 自動免疫反應理論(auto-immune reaction theory)

(라) 生理的 統制理論

위에, 소개한 張仁協과 崔聖載교수의 見解에서 첫째로 遺傳的 理論과 둘째로 非遺傳的 細胞理論으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 점에서 그 見解의 特異點을 찾아보게 된다.

3) 大韓生化學會의 심포지엄에서 나타난 見解

대한생화학회는 1990년 5월 24일, 老化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련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모았다고 하거니와, 그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老化에 관한 學說들은 다음과 같다.<sup>23)</sup>

노화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학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모두는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원래 각 생물마다 일정한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예정설(Program Theories)과 「외부의 여러가지 자극과 위해에 의해 생명력이 마모돼 죽음에 이른다」는 마모설(Error Theories)의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前者와 後者에 속하는 학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 前者 : (1) 유전자의 수명시계(Genetic Clock), (2) 호르몬의 수명시계(Hormone Clock), (3) 수명시계들의 상호작용(Clock Collection).

(나) 後者 : (1) 질못의 축적(Pile-up of Errors), (2) 주요 유전자의 손상(Damage on a few Key Genes), (3) 분자구조의 상해(Molecular Mayhem) 등.

위의 見解중 前者는 先天的 要因을 강조하는 것 같고, 後者는 後天的 要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前者는 遺傳的 理論과 그 脈絡을 같이하고 있으며 後者는 非遺傳的 細胞理論과 相通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 물론, 「늙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예정설”과 “마모설”은 兩大學說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複雜多岐한 老化의 原因을, 兩大學說중의 하나만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벅찬 일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先天性을 강조하느냐 또는 後天性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兩大學說에 대한 選好度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 生物學的 特性

老化에 따른 生物學的 特性을 크게 나누어, 身體機能의 低下라는 면과, 이른바 老人病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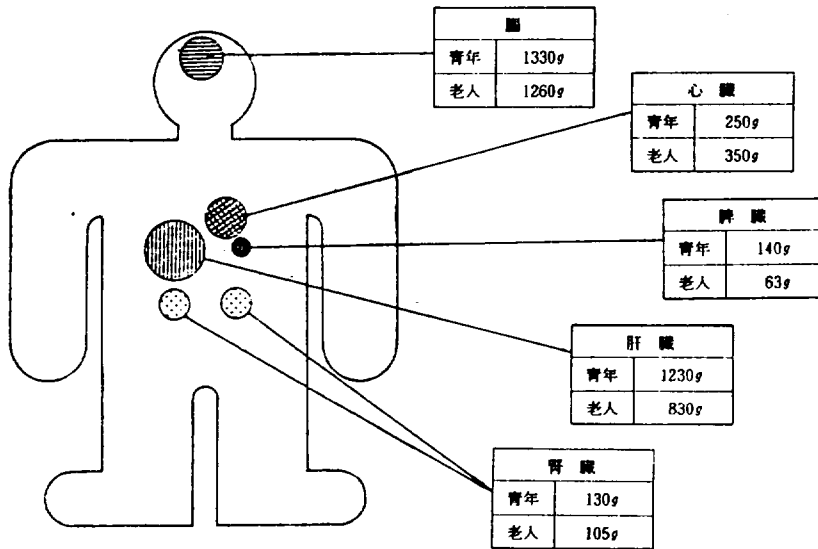
23) 조선일보, 1990.4.25, <11> : 오래 살 수는 없나…… 生化學會 「老化」 심포지엄.

는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老化와 身體機能低下

身體機能의 低下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身體와 각부분에 걸쳐 고찰하여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臟器의 重量에 관한 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表Ⅲ-2, 참조).<sup>24)</sup>

〈表Ⅲ-2〉 25세 청년과 75세 노인의 주요장기 중량비교



장기의 중량은 출생후 계속 증가하다가 노화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감소되는데 일반적으로 40대부터 감소현상이 나타난다. 심장은 다른 장기와는 달리 노화와 더불어 중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말초혈관의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마비와 지방분의 증가때문이라고 한다. 청년과 노인의 몇가지 주요한 장기의 무게를 비교하면, 〈表Ⅲ-2〉와 같아서, 노화에 따른 장기의 무게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身體의 기능면을 고찰한 事例를 몇가지 소개하여 본다.

△金聖順의 事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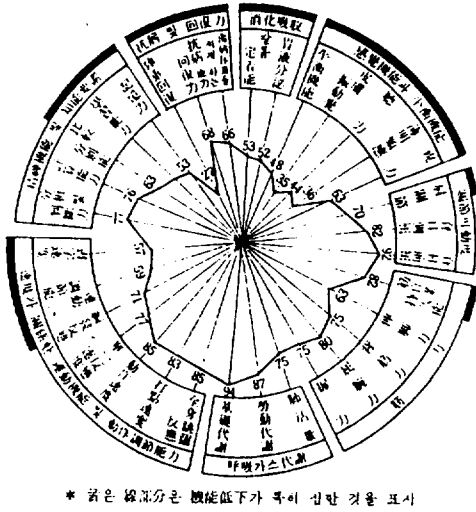
金聖順은 老年期의 心身機能低下를, 다음 〈表Ⅲ-3〉과 같이 試圖化시키고 것이다.<sup>25)</sup>

〈表Ⅲ-3〉은 50~59세의 心身機能을 最高潮期인 20~24세를 100으로 기준 삼아 비교한 것으로, 각 항목을 연결한 선이 중심에 가까와 질수록 기능이 저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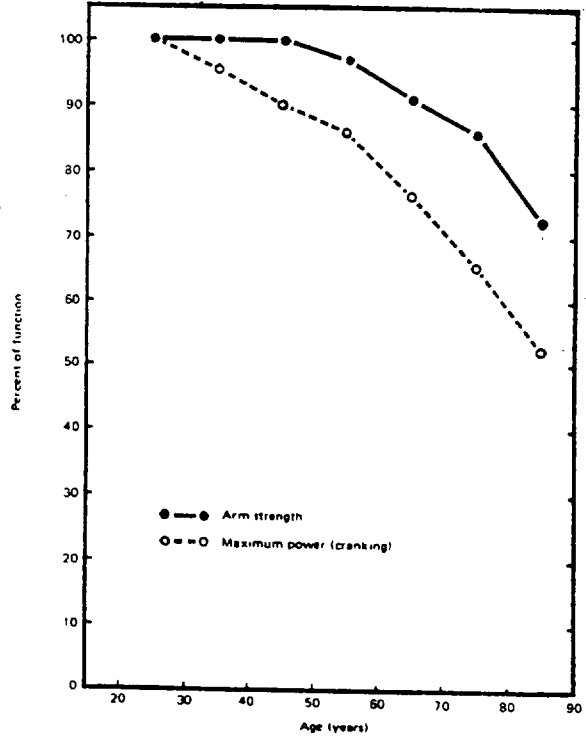
△Ruth B.Weg의 事例

24)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57에서 再引用.  
 25) 金聖順, 「老人福祉論」, 서울:二友出版社, 1981, p.82.  
 26) 上掲書, p.81.

〈表Ⅲ-3〉 老年期の 心身機能低下圖



〈表Ⅲ-4〉 老齡과 身體機能의 關係



Age decrements in muscle strength compared with decrements in maximum powers developed in a coordinated movement (cranking) utilizing the same muscle groups. (Adapted from Shock & Norris, 1970)

Ruth B. Weg는 年齡과 신체기능의 函數關係를 다음 〈表Ⅲ-4〉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sup>27)</sup> 〈表Ⅲ-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힘, 음성, 속도 그리고 신축성에 있어서 노인의 근육조직이 쇠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大韓生化學會에서 발표된 事例

1990년 4월 24일, 대한생화학회주최로 노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는데, 거기서 발표했던 사례는 다음 〈表Ⅲ-5〉와 같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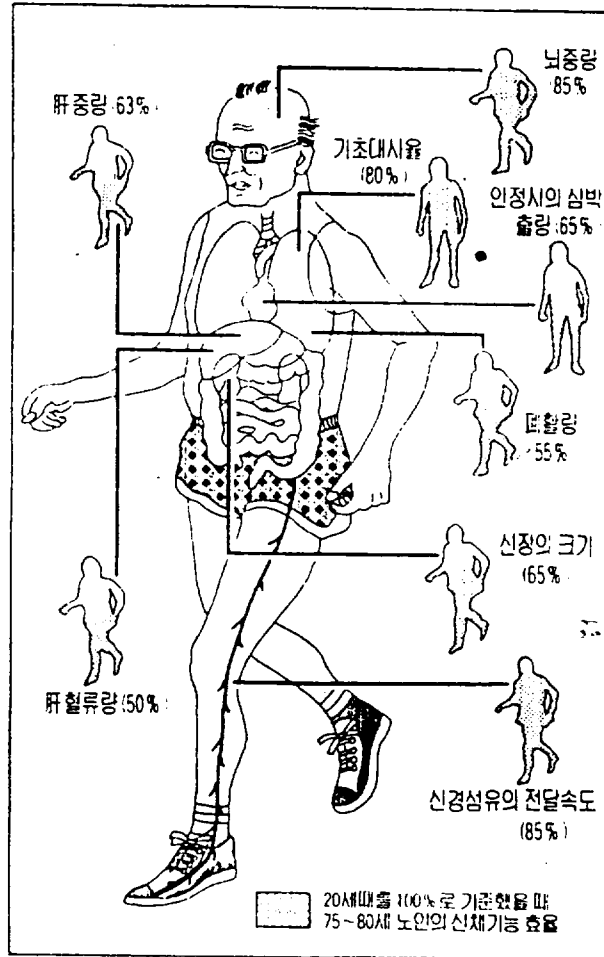
〈表Ⅲ-5〉는 인간육체의 최전성기인 20세를 100%로 했을 때의 75~80세 노인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試圖化시킨 것이다.

27) Diana S. Woodruff · James E. Birren, *AGING*, California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3, p.253.

28) 조선일보, 1990.4.25.〈11〉 : 오래 살 수는 없나, 生化學會 「老化」 심포지엄.



<表Ⅲ-5> 老人의 身體機能變化



일관하게의 기준성격인 20세는 100%로 했을 때의 75~80세 노인의 신체기능. 민자.

끝으로, 林玉子の 事例을 소개해 둔다. 그런데 林玉子の 事例은 日本老人을 대상으로 한 事例이기 때문에, 그 사례가 한국노인의 生理的 特性을 설명하는데 正當性(validity)이 있느냐라는 것은 차후 檢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林玉子の 事例은 老人의 生理的 特性을 一目瞭然하게 試圖化시켰다는 점에서 參考의 價値는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며, 그 圖表를 原文 그대로 소개하면 <表Ⅲ-6>과 같다.<sup>29)</sup>

29) 長谷川和夫·那須宗一, 「HANDBOOK 老年學」, 東京: 岩崎學術出版部, 1977, p.408.

〈表Ⅲ-6〉 老人生理的 特性

生理的フェイス		參 考 資 料 の 一 部	関連する設備計画
一	総合生理機能 健康状態		
一般	<p>・ 25種の生理機能と総合して満点を10とすれば老人は、3.6、成人は8.0</p> <p>・ 老人の自覚：丈夫35.0%, 普通46.5%, 弱い14.3%, 床につきまり4.2%</p> <p>・ 老人の腐病罹患率：人口千対185.3人</p> <p>・ 年間病日数：47日</p> <p>・ 傷病罹患率：人口千対185.3人</p> <p>・ 脳神経系の血管損、胃腸病、心臓病、ぜんそく</p> <p>・ 60歳以上の身体障害者数：269,000人、人口千対32.2人</p> <p>・ 就業不能者：21.9%</p>	<p>・1</p> <p>・2</p> <p>・2</p> <p>・3</p>	<p>・ 全体の設計計画</p> <p>・ 看護ホーム・病室・診察室などの規模算定</p>
骨・運動器	<p>・ 骨体各部寸法：省略(身長は10年当り1cm減少)・腰の曲り</p> <p>・ 老人の自覚：どこへでも出掛ける80%, 出歩けない14%, 不明6%</p> <p>・ 同上：階段の昇降は苦にならない67%, 若である22%, 出来ない11%</p> <p>・ 歩行速度：5mを歩くのに要する時間は老人8秒、成人5秒</p> <p>・ 神経痛・リウマチ老人：人口千対38.8人</p> <p>・ 身体不自由老人：人口千対18人</p> <p>・ 筋力は身長1cm当り0.8kg減少し、かつ年齢による衰退が加わる</p> <p>・ 握力：老人37kg, 成人43kg(成人に較べて43~49歳で有意差あり)</p> <p>・ 背筋力：老人130kg, 成人145kg(同上55~59歳で有意差あり)</p>	<p>・2</p> <p>・2</p> <p>・1</p> <p>・2,3</p>	<p>・ 建築設計の寸法</p> <p>・ 購買施設などへの距離</p> <p>・ 遊歩計画</p> <p>・ 廊下・階段の設計</p> <p>・ 取いすの問題</p> <p>・ 防湿</p> <p>・ 操作容易な扉・窓</p> <p>・ 扉の把手(レバー式)</p> <p>・ 合理的収納空間</p>
感覚器	<p>・ 視力：老人0.4, 成人0.9</p> <p>・ 近距離視力：0.2</p> <p>・ 遠視：50%</p> <p>・ 近視：10%</p> <p>・ 可聴距離：老人15cm, 成人80cm, 難聴者：1.2~3.9%</p> <p>・ 高調音程4,000C P S以上の波長に対して低下度が大である</p> <p>・ 嗅覚, 味覚</p> <p>・ 皮膚感覚の低下</p> <p>・ 閉眼片足直立時間：老人10.9秒, 成人31.6秒, ころび</p> <p>・ 立ちくらみ・メニエール氏病</p>	<p>・1</p> <p>・1</p> <p>・4</p>	<p>・ 照明・採光・眺望計画</p> <p>・ 伝達手段の計画</p> <p>・ 風雑化の防止</p> <p>・ ガス好ましくない</p> <p>・ 手摺・支持具・外開扉・床材料・いす座式</p>
中枢神経	<p>・ 精神機能の低下：知識の低下率34.0%</p> <p>・ ゆっくり話す</p> <p>・ 反応時間の延長</p> <p>・ 性欲の減退</p> <p>・ 睡眠が浅くなる</p> <p>・ 残存歯数60歳代14本, 70歳代11本, 80歳代7本</p> <p>・ 無歯：32%</p> <p>・ 胃液分泌低下</p> <p>・ 便秘・痔あち</p>	<p>・1</p> <p>・4</p> <p>・2</p>	<p>・ 模塑的様式の保存</p> <p>・ 居室設計</p> <p>・ 食品配置</p> <p>・ 便器の構造</p> <p>・ 寝室・便所浴室より看護者へ連絡(呼リン)</p>
消化器	<p>・ 高血圧者：人口千対26.7人</p> <p>・ 尿中では死因の第1位</p> <p>・ 胃腸への血液循環不足：夜尿回数の増加, 小便をちびる</p> <p>・ 肺活量：老人3,000cc, 成人3,600cc</p> <p>・ 呼吸力：老人50mm</p> <p>・ ぜんそく：人口千対8.7人</p>	<p>・1</p> <p>・2</p>	<p>・ 暖房計画</p> <p>・ 空気調和</p>
循環器	<p>1) ここでの老人は65歳以上の者の平均</p> <p>2) 成人とは20~24歳とする</p>		
呼吸器			

(原簿式一即氏, 建築学会論文より)

1) 高齢者調査報告, 昭和35 2) 高齢者調査報告, 昭和35 3) 身体機能調査報告, 昭和35 4) 健康管理シリーズ5「成人の管理」

위에서 列擧한 여러가지 事例들을 견주어 볼 때, 共通性이 許多함을 엿볼 수 있거니와, 그렇다고 그런 사례들이 老人全般에 걸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예로, A.Portmann은 生物學的 見地에서 人間을 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을 문제로 삼을 때에는 中樞的 神經系의 相對的 優位性을 늘 念頭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老年의 特殊性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生物學的 視角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노인에게는 個人差가 나타나는 바, 첫째로 노인에게는 精神的·身體的 差異, 둘째로 生活史的·環境的 差異가 있는 것이다.<sup>30)</sup> 그렇다고, 노인의 生物學的 個人差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노인의 生物學的 特性論은 故郷喪失(Heimatlos)의 신세로 轉落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2) 老人病

보통, 노인에게는 환자가 많은 경향이 있다. 노인의 건강에는 個人差가 크고, 질병의 진행 상황도 각각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老人病이란 한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sup>31)</sup> 여기서는 老人에게 持續的인 疾患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는 바, 그것은 <表Ⅲ-7>과 같다.<sup>32)</sup>

<表Ⅲ-7> 老人에 比較的 特徵的인 疾患

神 經 系	腦血管障害(腦血栓, 腦出血), 파킨슨病, 變形性頸椎症, 老年症呆, 初老期痴呆, 糖尿性疾患, 轉移性腦腫瘍 등
循 環 器 系	高血壓症(老人性, 本態性 등), 狹心症, 心筋梗塞, 不整脈(心房細動, 房室과열 등), 腹部大動脈瘤, 閉塞性末梢動脈疾患 등
腎 尿 器 系	腎硬化症, 糖尿性腎症, 慢性腎炎, 腎癌, 神經因性膀胱, 尿路感染症, 膀胱腫瘍 前立腺癌 前立腺肥大 등
消 化 器 系	消化管癌(食道, 胃, 腸), 肝癌, 脾癌, 膽石症, 食道裂孔症, 慢性胃炎, 習慣性便秘 등
呼 吸 器 系	慢性肝氣腫, 慢性氣管支炎, 肺線維症, 肺炎, 肺癌, 肺結核 등
血 液 系	續發性貧血, 多發性骨髓腫, 惡性貧血, 惡性림파腺腫 등
內分泌·代謝系	甲狀腺機能低下症, 甲狀腺腫, 男性性腺不全, 女性更年期, 糖尿病, 通風, 肥滿 등
骨·關節系	骨粗鬆症, 變形性脊椎症, 變形性關節症, 慢性關節류우머티즘, 骨髓腫이나 癌의 骨轉移 등

그리고, 傷病樣相을 金貞順의 所說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表Ⅲ-8>의 醫師診療에 依한 60세이상 人口의 疾病別 傷病率(100名當)을 살펴 볼 때, 神經系 및 感覺器官의 疾病이 가장 頻繁하였는데 이 中에서도 精神痛과 Pterygium이 太半이었다. 다

30) 金子二郎·新福尚武, 「老人의 精神醫學と心理學, 講座=日本の老人I」, 東京: 垣内出版, 1978, pp.10~11.

31) 金聖順, 前掲書, p.83.

32) 金聖順, 前掲書, p.84; 宇治谷義雄, 前掲書, p.25.

33) 金貞順, "前掲書人口의 主要疾患", 「韓國老年學」No. I, 韓國老年學會, 1980, pp.9~10.

〈表Ⅲ-8〉 醫師診察에 의한 60세이상 人口의 疾病別 傷病率(1,000名當)

疾病 17 分類	男		女	
	例 數	傷病率	例 數	傷病率
I. 感染 및 寄生蟲疾患	9	64	13	87
II. 新生物	2	14	2	13
III. 內分泌·영양·新陳代謝性疾患	3	21	3	12
IV. 血液 및 造血機關疾患	7	50	5	34
V. 精神病	3	21	8	54
VI. 神經系 및 感覺器疾患	38	271	37	248
VII. 循環器疾患	25	179	17	114
VIII. 呼吸器疾患	14	100	17	114
IX. 消化器疾患	3	57	8	54
X. 泌尿生殖器疾患	2	14	2	13
XI. 皮膚 및 下組織疾患	5	36	3	20
XII. 筋肉 및 骨格 疾患	23	164	33	221
XIII. 事故, 中毒 및 暴力	1	7	1	7
總 診 察 件 數	140		149	

資料 : 金貞順外, 韓國農村住民의 傷病樣相, 1976.

〈表Ⅲ-9〉 性別 好發惡性 新生物

55 ~ 64 歲			
男		女	
部 位	有 病 率	部 位	有 病 率
胃	380	胃	171
肝, 肝內膽管	156	子宮頸部	103
氣管, 氣管支, 肺	132	氣管, 氣管支, 肺	50
食道	55	肝, 肝內膽管	43
其他口腔	54	口咽頭	39
口咽頭	46	口脣	38
喉頭	44	女性乳房	36
大腸	37	唾液腺	35
口脣	31	直腸 및 肛門	34
直腸 및 肛門	31	子宮體	34

資料 : 保健社會部, 全國成人實態調查研究, 1981.

음 順位가 筋肉 및 骨格疾患인데 이 中 73%가 關節炎으로서 女子는 男子의 約 2.5배나 더 頻發하였다. 循環器疾患中에는 高血壓性 心臟疾患이, 呼吸器疾患에는 肺氣腫, 氣管支炎

을 包含하는 所謂 慢性 閉鎖性肺疾患이 各各 壓倒的으로 높았다. 感染 및 寄生蟲疾患에는 亦是 慢性疾患인 肺結核이 問題였고 消化器系疾患의 約 半數는 消化性潰瘍症이었다. 內分泌, 營養 및 新陳代謝疾患은 男女 各 3例中에 2例씩 糖尿病이었는데 集團診療前에는 모두 모르고 있었다. 要約하면 이들 老齡人口에 問題되는 疾患은 모두 退行性 慢性疾患이 大部分이었다.

한편, 保健社會部의 「全國成人實態調查研究(1981)」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55~64歲의 好發惡性新生物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그것은 <表Ⅲ-9>와 같다.<sup>34)</sup>

<表Ⅲ-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性別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好發惡性新生物의 경우, 胃에서 多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食文化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름든 노인질환에 관한 管理대책으로 許 程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up>35)</sup>

- ① 노인병은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질의 의로서비스라도 한번에 끝나면 별 의미가 없으므로, 계속적인 管理체계가 수립되어야 겠다.
- ② 노령일수록 만성병이 많아지나 그 관리에 대한 가족이나 본인의 관심은 낮아지기 쉽다. 이런 무관심 속에 묻혀서 발견되지 않은 환자들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체계가 생겨나야 겠다.
- ③ 노인 또는 그 가족의 경제력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의 저렴한 비용의 의료제공체계가 생겨나야 겠다.

위에서 살펴본 老人의 生物學的 特性에 관하여서는 生物學的, 保健學者 또는 醫學者들의 所說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에 不過할 따름이다. 이 이상의 천착에 관하여서는 역시 전문가의 손을 빌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2. 社會·心理的 特性

위에서는, 老化의 生物學的 接近을 통해서, 老人의 生物學的 特性을 살펴봤거니와, 무릇 老化를 接近하는 데는 生物學的 接近 이외에 社會學的 接近과 心理學的 接近이 있다. 따라서 社會學과 心理學에서 각각, 老化에 관한 接近을 도모하면서 각각의 理論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老化에 關聯된 社會學的 理論이 나오게 되고, 老化에 關聯된 心理學的 理論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前者에는 ① 老齡階層化 理論(age stratification theory), ② 下位文化 理論(subculture theory), ③ 現代化理論(modernization theory), ④ 分離理論(disengagement theory), ⑤ 活動理論(activity theory), ⑥ 交換理論(exchange theory) 등이 속하고<sup>36)</sup>, 後者에는 ① 에릭슨(Erikson)의 이론, ② 헤비그헤스트(Havighurst)의 이론, ③ 한국인의 발달과업이론, ④ 레빈슨(Levinson)의 인생의 계절론 등이 있다.<sup>37)</sup>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른바 活動理論

34) 許 程, 「老人과 健康」 鄭周永, 「現代社會와 老人福祉」, 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3, p.108에서 再引用.

35) 허 정, 「老人學과 老人病學의 生物醫學的 側面」, 영남대학교·미쉬건대학교, 「老化·老人問題」, 서울: 국제학술회의, 1984.6.26~27, p.113.

36)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p.109~120.

37) 尹 振,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pp.35~51.

이나 分離理論을 社會學的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心理學的 側面에서 活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sup>38)</sup> 그리고 실제로 老年學者(gerontologist)들이 주장하는 老人의 性格論은 社會·心理的 側面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社會·心理的 特性이라는 視角에서 老人의 特性을 천착하여 보자는 것이다. 다음에 여러가지 見解를 알아보기로 한다.

가. 金聖順의 見解

金聖順은 노인의 성격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39)</sup>

- 1) 건강상 혹은 경제상의 불안감
- 2) 생활상의 적응 불완전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초조
- 3) 정신적 흥미의 狹隘로부터 오는 內閉性
- 4) 신체적 쾌락에 대한 흥미의 중대
- 5) 性活動의 감퇴
- 6) 性衝動의 減弱
- 7) 조건이 변화함에 따른 학습이나 적응이 곤란
- 8) 홀로 된 데 대한 孤獨感
- 9) 疑心·嫉妬心
- 10) 保守性
- 11) 饒舌·多弁
- 12) 과거의 상태에 대한 집착
- 13) 頑固
- 14) 不確實性
- 15) 인생의 落伍者

이어서, 金聖順은 노인의 위와 같은 성격 변화의 원인을 두가지로 大別하여 살피고 있는데, 즉 하나는 생물학적 변화에 의한 것(狹義의 性格變化特性)이며, 다른 하나는 非生物學的 因子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환경 및 생활사 등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나. 崔順男의 見解

崔順男은 그의 저서, 「現代社會와 老人福祉」에서 老人의 性格窺明에 관한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소개하고 있거니와 그 중에서 金子二郎의 見解를 여기서 再紹介해 둔다.<sup>40)</sup> 즉, 金子二郎은 一般家庭老人의 臨床觀察로부터, 다음과 같은 老人性格의 特徵을 고찰하여 열거하고 있다.

- 1) 保守
- 2) 義理에 대한 견고

38) 長谷川和夫·霜山德爾, 前掲書, pp.80~82.

39) 金聖順, 前掲書, p.92.

40) 崔順男, 「現代社會와 老人福祉」, 서울:弘益齋, 재판, 1989, p.38.

- 3) 체념
- 4) 活動性減退
- 5) 無精, 不潔
- 6) 興味減退
- 7) 依存性
- 8) 不安, 不滿, 愚痴
- 9) 自己中心性
- 10) 親切, 요설
- 11) 疑惑, 嫉妬
- 12) 孤獨感
- 13) 吝嗇
- 14) 頑固
- 15) 短氣

다. 長嶋紀一의 見解

長嶋紀一은 老人의 性格特徵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up>41)</sup>

- 1) 男性의 女性化·女性의 男性化
- 2) 感情興奮性의 低下
- 3) 感情彈力性의 低下
- 4) 抑鬱傾向의 增大
- 5) 實用的·實際的 傾向이 強化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長嶋紀一이 주장하는 1) 男性의 女性化·女性의 男性化 傾向은 흥미롭다 아니할 수 없다. 노인들은 性을 超越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현상을 超性性이라고 할만하다. 즉 超性性이란 性을 초월하는 성질이라는 뜻이다.

라. 尹 振의 見解

尹 振은 그의 저서, 「성인·노인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up>42)</sup>

장년기부터 나타나는 특성이운데 신체에 대한 반응, 시간전망의 변화 그리고 정신 생활에 있어서의 내성적인 경향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기에 다음의 몇가지 특성이 첨가된다.

- 1) 우울증경향의 증가
- 2)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 3) 성역할지각의 변화
- 4) 경직성의 증가

41) 加藤正明·湯澤雅彦·清水 信, 「老年期」, 東京: 有斐閣, 1979, p.86.

42) 尹 振, 前掲書, pp.181~189.

- 5) 조심성의 증가
- 6)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 7)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 8) 의존성의 증가

위에서 살펴본, 尹 振의 見解는 老年心理學專攻이라는 視角에서의 見解로, 우리나라 老年學界의 耳目을 끌고 있는 見解이거나, 이런 견해는 張仁協과 崔聖載도 同斷하고 있다.<sup>43)</sup> 필자 역시 尹 振의 견해에 同斷하거나, 이러한 老人의 性格은 여러가지로 보는 視角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視角이 都市나 農村이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農家老人의 特性을 淸查하려는 견해도 없지 않다.<sup>44)</sup> 森 幹郎은 주장하기를, 농촌노인에게는 停年制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도시노인들보다 덜 초조해질 것이며, 그런 마음이 농촌노인의 性格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地域性에 따라서 노인의 性格形成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제주도의 地域性이라는 視角에서 제주도노인의 特性을, ① 儉素性, ② 勤勉性, ③ 自立性, ④ 長壽性, ⑤ 強靱性 그리고 ⑥ 溫固性이라고 봤다.<sup>45)</sup>

#### 마. 老人性格類型論

老人의 性格特性을 適應性이라는 基準으로 分類한 類型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sup>46)</sup>

- 1) 圓熟型(mature) : 일상생활에 대해서, 衝動的·防衛的으로 對應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思慮的·建設的으로 대응하는 類型이다. 다시 말해서 高齡者인 자기의 實現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적극적인 사회생활중에서 만족을 찾아내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2) 依存型 : 安樂椅子型(rocking chair), 隱退依存型이라고 일컬어지는 類型으로, 老後에는 모든 일을 他人에게 依存하는 生活을 하며 安樂하게 지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이 類型에 속한다.
- 3) 自己防衛型(armored) : 이 유형은 強制的으로 社會集團으로부터 離脫되어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活動性이 높은 점에서는 圓熟型과 같지만, 이런 경우, 老衰에 대한 不安, 또는 老年拒否가 潛在하고 있어서, 積極的 活動은 그에 대한 反動이라고 보인다.
- 4) 攻擊型(angry man) : 일명 外罰型이라고 하는 바, 이 유형은 老年期에 이르러 자기의 不滿이나 失敗를 자기이외의 거시기에 향하여 敵意, 非難, 攻擊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 5) 自責型(self-hater) : 內罰型이라고도 말하는 바, 이 유형은 內面的 傾向이 강한 유형이며, 老後의 生活에 대하여 自責的 態度를 취하는 유형이다. 劣等感이 강하고, 社會的 成熟度는

43)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p.77~82.

44) 森 幹郎, 「政策視點の 老年學」, 京都市: ミネルヴァ書房, 1983, pp.124~130.

45) 韓昌榮, 前掲書, pp.177~190.

46) 湯澤雅彦, 「老年學入門」, 東京: 有斐閣雙書, 1978, pp.40~41; 加藤正明·湯澤雅彦·清水信, 前掲書, pp.88~90.



아주 낮으며, 일에 대한 適應性도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여러가지 類型을 살펴봤거니와, 類型이란 때로는 準據基準(frame of reference)의 役割을 하는데 그 眞價를 발휘하게 된다. 즉, 老年期에 접어든 사람이, 그런 類型에 자기 자신을 投影照準히켜 볼 때, 자기가 어떤 類型에 해당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 類型論의 存在理由랄 수 있다. 거울에 비친 類型中 圓熟型이 바람직스런 것임은 再言의 餘地가 없다.

### 3. 住居形態로 본 特性

老人의 住居形態로 본 特性을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이른바 家族形態를 살펴보고 그 연후에 住居形態로 본 老人의 特性을 導出하여 보고자 한다.

#### 가. 家族形態

家族形態에는 여러가지로 視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편의상, 家父長的인 家族形態를 말하는 大家族과 核家族 그리고 濟州島 固有의 박거리模型의 家族形態를 前提로 해서, 다음에 論旨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大家族

개괄적으로 말하면, 韓, 中, 日의 三國은 古代社會에서부터 米穀生産을 주산업으로 하는 農業國家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강한 家父長的인 통제밑에 가족이 埋沒되어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다.<sup>47)</sup> 이와같이 韓國에서도 傳統的으로 家父長制를 根幹으로 하는 가족제도가 발달하였거니와, 이러한 內容의 家長權이 父系社會에서는 한 家系內에 1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한 家族內에 두 個의 家長權이 存在할 수 없다는 意味에서 家長權은 排他的 性格을 가진다. 家長權을 占有하는 者는 最高世代의 最高年齡者이며 韓國의 直系家族에서는 父이기 때문에 家父長權이 成立된다. 家父長權이 韓國의 경우 血統上的 地位에 立脚하였다는 것 以外에 直系家族이기 때문에 家父長 一人에 모든 權限이 集中되어 있는 構造의 特色을 갖고 있다.<sup>48)</sup> 이와 같은 家父長權을 갖는 家長의 役割을, 崔在錫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sup>49)</sup>

첫째, 家系繼承者(奉祀者)의 獲得

둘째, 家産의 管理

셋째, 家族勞動에 의한 收益의 取得

넷째, 家族의 生産, 消費 및 勞動의 統制

다섯째, 家風 및 家訓의 傳統의 保障

47) 李萬甲, "東洋社會의 近代化", 「東西研究」, 第1卷,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研究院, 1988, p.29.

48)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서울: 一志社, 1981(五刷), p.133.

49) 崔在錫, 「改訂 韓國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1982, p.545.

여섯째, 家族의 扶養

일곱째, 祖上拜禮의 司祭(祭文)

여덟째, 婚禮, 離婚 및 葬禮의 主宰(婚主, 喪主)

아홉째, 집의 上下秩序의 維持

열째, 權威主義的 性格의 形成(家長의 權威를 保障하기 위하여 幼少年時부터 家長이나 父母의 不可誤性을 믿도록 訓練한다.)

위와 같은 家長의 役割을 擔當하는 最高年齡者인 老人은, 大家族制度下에서 그 權威性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 2) 核家族

核家族(nuclear family) 또는 夫婦家族은 都市의 住宅地域에 있어서의 家族形式이랄 수 있다. 核家族의 현저한 特徵은 (a) 夫婦가 同等한 權威를 가지고 있다는 것 (b) 夫婦間의 勞動의 配分이 彈力的이라서 役割이 간단히 逆轉한다는 것 (c) 거의 모든 친구가 夫婦의 共通的 親友라는 것 (d) 夫婦의 性格이 調和하는 것 (e) 친구나 이웃사람에 의한 社會的 拘束이 最小限이라는 것 (f) 夫婦는 餘暇活動을 大部分 함께 하지 않고 친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데에 重點을 두고 있다.<sup>50)</sup> 그리고 核家族의 機能은 ① 性的 關係의 規制 ② 生命 維持 ③ 種의 再生産 ④ 文化傳達이라고 할 수 있다.<sup>51)</sup> 이들 기능 과 老親의 役割(存在)과의 相關關係를 살펴 보면,

① 아들 夫婦의 性生活에 있어서, 老親의 存在는 도움은 커녕 오히려 妨害 要素가 될 수 있고,

② 經濟的 活動面에 있어서도 老親은 有力한 도움이나 存在가 되기 어려우며,

③ 生殖活動에 있어서도 老親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기(孫子)를 돌볼 程度이고,

④ 教育的인 面에 있어서 老親의 役割은 第二次的인 것에 지나지 않음과 같은 것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바로 役割面에서는 老親의 “文化的인 優越者” 또는 “傳承者”로 행세할 餘地가 核家族에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核家族化하여 감에 따라서, 老人들은 別居 또는 獨居 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 3) 박거리模型의 家族

박거리模型의 家族을 云論함에 있어서, 먼저 第三家族形態로서의 老人家族에 관한 理論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박거리模型의 家族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第三家族形態로서의 老人家族

앞에서 살펴 본 核家族이 지니는 주된 問題點은 老人을 獨立化시키고 孤獨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에 第三의 家族形態를 생각할 必要가 생기게 된다.

50) E.W. 바·जेस編, 森 幹郎譯, 「西歐諸國における 老人問題」, 東京: 社會保險出版社, 1975, p.457.

51) 金相圭, 「老人福祉의 體系的 研究」, 大邱: 慶北大學校出版部, 1976, p.51.

이 第三의 家族形態模型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가 있다. 즉, 그 하나는, 各者의 獨立性을 유지하면서 親子間의 接觸과 協力關係가 緊密하고 機能的으로는 同居하는 것과 類似한 모형을 修正擴大家族(modified extended family)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散在된 擴大家族인 셈이다. 즉, 親子間은 “국이 식지 않는 程度의 거리”에 別居하면서 相互의 獨立性을 保全하며 親交하는(intimacy but at a distance)모형인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父母同居地와의 隣接水準과 訪問回數가 문제된다. 理想論으로는 그 隣接水準에서 接近하면 할수록 더 좋고 그 訪問回數 역시 頻繁度가 클수록 좋은 것은 再言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老人家族의 形態를 同居形態의 方向에서 찾아보려는 見解들이 있는 것인 바, 여기에 그런 見解들 중에서 두가지를 살펴 본다.

(1) 許敏求의 見解<sup>52)</sup>

世대를 別途로 한 同居形態로 家族構造는 對外的으로는 同一家族이며 子息夫婦가 家族을 代表한다. 그러나 内部的으로는 別居世帶의 構造를 取하기 위해 同一家族으로서의 相互依存性을 維持하면서도 老親과 子息夫婦間에는 서로 自立性이나 privacy를 尊重하는 民主的인 雰圍氣를 育成하는 模型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家屋의 建築構造에 對해서도 再檢討가 行해질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2) 那須宗一의 見解<sup>53)</sup>

核家族化의 傾向과 同居志向의 性向을 고려하여 제창된 것이 “修正直系家族”(modified stem family)의 形態이다. 즉 家屋을 改造하여 出入口를 달리하고, 老人家族과 子의 家族이 各各 上下層에 居處하는 ‘準同居’의 形態, 또는 한 마당에 別체를 짓고 共同使用의 部分을 두면서 家口를 分離하는 ‘分居의 形態’(joint living pattern)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形態的으로는 直系家族이지만, 機能的 내지 規範的으로는 分離된 두개의 核家族을 單位로 하는 一種의 親族 system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居住形態가 豫測하기 어렵다고 那須는 말하고 있다.

(나) 박거리模型의 家族形態

위에서 許敏求와 那須宗一의 見解를 살펴봤거니와, 그들은 理論構造上的 모형을 제한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濟州島에는 固有의 老人家族形態가 存在했었으니, 그것은 理論以前의 事實인 일이다. 그 형태가 바로 박거리形態인 것이다.<sup>54)</sup> 이 박거리模型은 許敏求나 那須宗一이 주장하는 理論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실제로는 獨創的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老夫婦生活과 子夫婦生活은 完全히 獨立性을 유지하는 모형인 것이

52) 許敏求, “近代家族에 있어서 노인의 役割과 保障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72, p.125.

53) 一番ヶ瀬康子外 二人編, 「老人問題事典」, 東京:ドメス出版, 1974, p.211.

54) 韓昌榮, 前掲書, pp.162~163.; Han Chang-Yong(韓昌榮), “La situation des personnes âgées dans l’île de Cheju”, 「Revue de CORÉE」 Vol.14, No.3, Commission Nationale Coréenne pour l’UNESCO, Automne 1982, pp.48~60.; 崔順男, 「現代社會와 老人福祉」, 서울:弘益齋, 1989., pp.271~273.

다. 다시말하면 한 울타리안에 두개 또는 그 이상의 核家族이 共存共生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박거리模型인 것이다. 이 박거리模型의 機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5)</sup>

① 一般的으로는 배우자의 死別 또는 親知의 喪失로 對人關係가 孤獨하게 된다고 하지만, 제주도老人은 한 울타리 안에 居住하므로 孤獨의 問題는 相對的으로 그렇게 深刻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② 제주도老人은 經濟的으로 自立하려는 意志가 強하기 때문에,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정지(부엌)와 고팡(庫房)을 따로 한다. 즉 家庭經濟의 民主化現象이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③ 家庭에서 박거리로 옮긴다 해서, 老人의 地位가 低下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老人이 안거리(안채)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獨立性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④ 子女의 家族이 營爲하는 日常生活을 늘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老人은 無聊함이 없어진다.

⑤ 孫子들의 教育에 영향을 주게 된다. 老人이 體得한 풍부한 生活經驗은 손자들에게 不知不識間에 傳承되어 靑少年善導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靑少의 視角에서는, 敬老, 敬祖思想을 함양하는 <場>을 박거리模型이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⑥ 박거리模型은 父母와 자식간의 눈치보기를 止揚(anfheben)한다. 따라서, 서로 便安한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老人들은 아늑한(제주도방언:오시룩한; 영어: cozy, comfortable)분위기를 좋아한다. 박거리模型은 바로 아늑한 분위기를 造成하는 模型인 것이다. 老人에게 성가신 일은 禁物이다. 그런데 박거리模型은 그와 같은 “성가심”을 雲散霧消格으로 미리 없애버리는 裝置(apparatus)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⑦ 姑婦間的 갈등을 예방해 준다. 모르면 藥이라고 했던가. 서로 獨立生活을 영위하기 때문에 內面的, 精神의 世界에도 獨自性이 유지된다. 따라서 고부간의 갈등을 最小化시키는 役割을 박거리模型이 수행한다.

#### 나. 住居形態로 본 特性

위에서, 大家族, 核家族 그리고 박거리模型에 관하여 一瞥하였거니와, 우선 한국의 大家族에 관하여 洪承稷은 1967년의 調査에서 그 長短點을 다음 <表Ⅲ-10>과 <表Ⅲ-11>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56)</sup>

55) 韓昌榮, 前掲書, pp.167~168.

56) 洪承稷, “大衆文化와 靑少年”, 『韓國의 社會와 文化』 第1輯,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p.273~278.

〈表Ⅲ-10〉 家族制度의 長點

質問: 우리나라의 원래의 家族制度는 어떤 면에서 近代化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응답률		
	敎授 (n=761)	言論人 (n=754)	全數 (N=1515)
敬老思想	3.68	3.18	3.43
共生共存의 精神	24.70	28.24	26.47
家庭倫理	24.57	18.43	21.52
血緣的 紐帶	3.42	5.83	4.62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38.10	39.38	38.75
기타	1.58	0.80	1.19
무응답	3.94	4.11	4.03
計	99.99	99.97	100.01

〈表Ⅲ-1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원래의 家族制度는 近代化에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다”라는 질의에 대한 응답율이 38.75%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共生共存의 精神”이나 “家庭倫理”에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表Ⅲ-11〉에 의하면, “家族에 대한 依存心”이 45.35%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門閥主義”, “大家族制度”, 그리고 “家父長的 權威主義”도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의 短點을 窺察할 수 있는 것이다.

〈表Ⅲ-11〉 家族制度의 短點

질문 : 우리나라의 原來의 家族制度는 어떤 면에서 近代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응답률 (%)		
	敎授 (n=761)	言論人 (n=754)	全數 (N=1515)
男尊女卑思想	8.28	7.29	7.79
家族에 대한 依存心	45.73	44.95	45.35
長孫制度	1.97	2.39	2.18
家父長的 權威主義	11.56	12.46	12.01
門閥主義	15.11	15.12	15.12
大家族制度	12.48	14.05	13.27
기타	1.71	1.33	1.52
無應答	3.15	2.39	2.77
計	99.99	99.98	100.01

위와 같은 長短點을 지니고 있는 大家族은 이른바 核家族化現象에 밀려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核家族化現象이 점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소위 老年 家口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경향은 <表 Ⅲ-12>와 같다.<sup>57)</sup>

<表Ⅲ-12> 가족별거 노년가구 및 노년인구의 비율\*

구 분	1981			1985				1988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대도시	중소 도시	농촌	전국	대도시	중소 도시	농촌
노년가구	-	-	-	20.5	15.1	18.5	23.3	22.9	14.7	17.0	30.9
노년인구	19.8	19.0	20.5	20.6	17.0	19.3	20.6	25.3	15.9	18.4	32.9

자료: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1, p.43.  
 임종권의, 노인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p.24,25,81,82.  
 이가옥의, 전개서, 1989, p.44,198.

주: \*전체노년인구 및 전체노년인구에서 가족별거 노년가구 및 노년인구의 비율임.

<表 Ⅲ-1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족별거 노인가족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1985년에 20.5%이었던 것이, 1988년에는 22.9%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증가율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년인구의 자녀와의 연락빈도 및 접촉빈도는 <表Ⅲ-13>과 같다.<sup>58)</sup>

<表Ⅲ-13> 노년인구의 자녀와의 연락빈도 및 접촉빈도 (단위: %)

상 호 작 용 횟 수	연 락 빈 도	접 촉 빈 도
거의 매일	9.1	5.4
주 1회 정도	15.6	6.9
보름 1회 정도	12.9	6.6
월 1회 정도	22.5	14.3
3개월 1회 정도	16.6	21.8
6개월 1회 정도	11.6	25.5
년 1회 이하	11.7	19.5
계 (명)	100.0 (14,011)	100.0 (14,044)

자료: 이가옥의, 「노인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p.63, 67.

주: \*노년인구의 자녀와의 연락 및 접촉빈도는 노부모가 자녀에게 연락·접촉을 하는지 자녀가 노부모에게 연락·접촉을 하는 지의 방향성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가족별거 노년인구 4,837명의 생존자녀 14,105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임.

57) 李佳玉, "家族構造의 變化와 扶養問題", 保健社會部·韓國人口保健研究院, 「老人福祉政策의 方向設定을 위한 세미나」,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8.17~18, p.12.

58) 上揭論文, p.36; 중앙일보, 1990.5.8.<18>: "자식들과 年2회 만난다".

〈表Ⅲ-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락빈도”는 월 1회정도가 가장 많고(22.5%), “접촉빈도”에서는 6개월 1회 정도가 제일 높게 (25.5%)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년에 2회정도의 접촉빈도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 감정(we-feeling)이 많은 우리나라 老人文化에서는, 1년에 2회정도 접촉빈도에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모커리模型이랄 수 있는 것이다.<sup>59)</sup>

다음에, 大家族, 核家族 그리고 모커리模型안에서의 老人性格形成樣態를 살펴 보면, 〈表Ⅲ-14〉와 같다.

〈表 Ⅲ-14〉 家族形態와 老人性格과의 關係

老人性格 / 家族形態	大 家 族	核 家 族	박 거 리 模 型
	權 威 性	獨 立 性	民 主 性

〈表Ⅲ-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大家族制度下에서는, 老人의 權威性이 尊重되어 왔으며 따라서 老人들은 자연스럽게 權威的 性格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核家族化의 등장으로 인해서 大家族은 崩壞되어가면서, 老人의 權威性은 減少一路에 있으며 好不好間에, 老人家口(別居하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즉, 老人의 權威性은 獨立性으로 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노인의 獨立性은 都市化 또는 産業化를 기다리지 않고, 그 以前에 벌써 核家族을 발전시켰던 것이다.<sup>60)</sup> 이 점이 미국노인과 한국노인의 位相이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노인들은 都市化 또는 産業化에 밀려나면서 獨立性을 찾자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雲散霧消格으로 없애주는 것이 바로 박거리模型인 것이다. 박거리模型에 安住하게 되면, 許敏求의 말과 같이 民主性을 保持하게 된다. 앞서 살펴 본 老人性格類型論(Ⅲ, 2, 마)이라는 視角에서는, 圓熟型(mature)이 바로 民主性에서 함양된다고 본다. 환언하면, 박거리模型의 家族形態에서 老人이 起居하게 되면, 자연히 老人의 性格이 圓熟型으로 接近되어 간다는 뜻이다. 進一步하여, 박거리模型에서는, 우리나라 老人文化의 屬性이라 할 수 있는 權威性(大家族下에서 習得되어 진 것)과 “우리 감정”(we-feeling)도<sup>61)</sup> 잘 昇華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老人性格類型論에서 理想的 模型은 圓熟型이라 하였거니와, 그러한 圓熟型을 助長하기 위해서 박거리模型이 권장되어야 하여 老人住宅政策에도 活用되어야 한다.

59) 李佳玉, 前揭論文. p.37:註21), 참조.

60) David Hackett Fisher, *Growing Old in America*(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23.

61) 韓昌榮, “韓·美老人文化와 福祉行政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21輯, 濟州大學校, 1985.12., p.233.

4. 老人文化로 본 特性

앞서, Ⅲ.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老化에 關聯된 社會學的 理論 중 下位文化理論(subculture theory)을 취하게 된다면, 韓國大衆文化를 前提로 할 때, 그 下位文化로서, 靑少文化도 가능한 것처럼, 老人文化의 存在性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거창한 韓國大衆文化의 本體를 천착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本體를 前提로 할 때, 老人文化의 本質을 窺明하는 데 밀거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老人文化에 관한 관심이 高潮되어지고 있거니와, 이런 점에서 1990년 5월 22일, 서울特別市와 韓國老年學會가 「老人文化의 새로운 定立과 課題」를 主題로 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것은<sup>62)</sup> 老人文化의 창달을 위해서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고 보아진다. 그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다.

「老人文化의 새로운 定立과 課題」

제18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노인문화의 새로운 방향과 정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90 5.22(화) 13:0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서울 특별 시장 고 진  
한국노년학회장 윤 중 주

일정표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 회 식

사회: 윤 진(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14:20~14:55 기조연설: 노인문화의 새로운 정립과 과제  
연 설: 고영복(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4:55~15:45 주제발표1: 가족과 노인문화  
좌 장: 현두일(전 건국대 교수)  
발 표: 서병숙(한양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토 론: 황진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맹희재(천주교서울대교구 노인전담수녀)

62) 東亞日報, 1990.5.22.<9>: 노인에게 일거리가 「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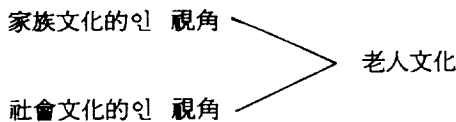


15 : 45~16 : 00	휴 식	
16 : 10~17 : 00	주제발표2 :	여가와 노인문화
	좌 장 :	송대현(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발 표 :	성민선(성심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토 론 :	김동배(연세대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최성균(중부노인종합복지관수석사회복지사)
17 : 00~17 : 50	주제발표3 :	건강과 노인문화
	좌 장 :	김정근(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 표 :	이운숙(동덕여대 건강과리학과 교수)
	토 론 :	이선자(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양명생(보건사회부 의료보험급여과장)
18 : 00~19 : 00	리 셉 션	“세종홀”

同세미나에서 高永復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老人文化는 「가족문화의 하부분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문화로서의 일면도 지닌 노인문화의 양면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高永復교수는 두가지 視角, 즉, 가족문화적인 시각과 사회문화적인 시각으로 老人文化를 고찰하고 있는 바, 그것을 圖式化하여 보면, 다음 <表Ⅲ-15>와 같다.

<表Ⅲ-15> 老人文化에 대한 視角



그런데, 高永復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社會文化的인 視角에서의 老人文化가 발달되어 있지 아니한데, 바로 이것이 老人文化의 課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文化를 生活樣式(way of life) 또는 行動類型(pattern of behavior)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老人은 그 나름대로의 생활양식과 행동유형이 있게 마련이고 미국 노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양식과 행동유형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천착하기 위해서는 巨視的으로 東洋文化와 西洋文化의 차이점부터 比較해 봐야 할 것인 바, 그 比較를 圖式化하여 보면, <表Ⅲ-16>과 같다.<sup>63)</sup>

6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社會의 規範文化」, 경기도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68.

〈表Ⅲ-16〉 東洋文化와 西洋文化의 比較

東 洋 文 化	西 洋 文 化
① 傳統主義(形式性·保守性)	① 合理主義(實質性·進就性)
② 家族主義(集合性)	② 個人主義(個別性)
③ 位階主義(垂直性)	③ 平等主義(水平性)
④ 歸屬主義(緣故主義)	④ 業績爲主(能力主義)
⑤ 過去志向	⑤ 未來志向
⑥ 私的關係(主情性·主觀性)	⑥ 功績關係(能率性·客觀性)

위 〈表Ⅲ-16〉과 같은 比較圖式이 한국老人文化와 미국 老人文化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R.Williams의 所說 역시 미국의 老人文化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 될 것인 바, 그의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64)</sup>

윌리엄스(R. Williams)는 「美國社會」(*American Society*)라는 저서를 통해서 미국문화의 지배적이고 전통적인 가치체제로 1) 정취와 성공, 2) 활동과 일, 3) 도덕적 지향성, 4) 인간주의적 습성, 5) 능률성과 실용성, 6) 진취성, 7) 평등 8) 자유, 9) 동조성, 10) 과학성 내지 세속적 합리성, 11) 민족주의 내지 애국심, 12) 민주주의, 13) 물질적 안정성, 14) 개인주의적 퍼스널리티, 15) 종족우월주의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미국인들의 가치체계의 중심적 구조는 근본적으로 미국화된 퓨리티니즘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위에서 살펴 본 〈表Ⅲ-16〉의 比較圖式이나 R.Williams의 所說을 綜合檢討하여 볼 때, 미국의 老人文化에는 個人主義와 獨立성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老人文化에는 權威성과 우리 감정(*we-feeling*)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65)</sup> 老人文化라는 視角에서 미국의 模型과 한국의 模型사이에 優劣을 云論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의 老人文化에는 獨立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美國社會에 特有한 이른바 Retirement Community 또는 Retirement Village를 造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 노인들은 自願奉仕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역시 그들의 獨立성에 기인하는 것이다.<sup>66)</sup> 한국의 老人文化에는 權威성과 우리 감정(*we-feeling*)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假定하였거니와, 이런 假定이, 都市와 農村 그리고 男性과 女性에 적용되어질 때, 그 強度乃至 濃度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老人文化를 세가지 視角 즉, ① 老人의 文化(Culture of the Aged), ② 老人을 위한 文化(Culture for the Aged), 그리고 老人에 의한 文化(Culture by the Aged)라는 視角에서 고찰하여 보기로 하는 바, 그것을 圖式化하면, 〈表Ⅲ-17〉과 같다.

64) 李康洙, 「韓國大衆文化論」, 서울: 法文社, 1987, p.153.

65) 韓昌榮, 前揭論文, pp.232~233.

66) Lorin A. Baumhover, and Joan Dechow Jones, Handbook of America Aging Programs(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7), pp.164~168.

〈表Ⅲ-17〉 老人文化의 構造

視覺 內容	老人의 文化 (Culture of the Aged)	老人을 위한 文化 (Culture for the Aged)	老人에 의한 文化 (Culture by the Aged)
特 徵	○文化 + 年輪的 經驗 ○文化傳承 ○있는것(Sein)	○文化的 福祉 ○老人文化政策 ○있어야 할 것(Sollen)	○文化的 創造性 ○個人差의 結果 ○바람직스러운 일 (desirable)
次 元	家族的·社會的	社會的·政策的	個人的
內 容	○傳統文化	○敬老思想 ○衣文化 ○食文化 ○住文化 ○놀이文化 ○福祉觀光 등	○個人差의  결과에 따른 多樣性 ※ 二大要素 : ○ "좋아하는 일" 과 ○ "人間關係" 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습으 로 나타나게 됨

〈表Ⅲ-1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老人의 文化(Culture of the Aged)는 바로 老人에게 있는(Sein) 문화랄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문화에 年輪的 經驗이 加算된 文化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老人文化는 家族的이나 社會的으로 文化傳承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老人을 위한 文化(Culture for the Aged)는 있어야 할 (Sollen) 문화라고 할 수 있다. 文化를 青年志向的 文化(youth oriented Culture)와 老年志向的 文化(age-oriented Culture)로 나누어 본다면, 오늘날의 文化는 青年志向的인 文化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老人의 文化"는 있는데 "老人을 위한 文化"는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老人을 위한 文化"를 배려하는 것을, 文化的 福祉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정책을 老人文化政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老人을 위한 文化" 역시 敬老思想을 基盤(Boden)으로 해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敬老思想이야말로 한국의 고유 사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敬老思想에 바탕을 둔, "老人을 위한 文化"는 다른 나라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老人을 위한 文化"와는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老人을 위한 文化"의 內包(connotation)는 多樣하거니와, 그것을 枚擧하여 보면, 衣文化, 食文化, 住文化, 놀이文化, 福祉觀光<sup>67)</sup> 등이 있을 것이다. 衣文化의 경우, 예를들면, "한복"이야말로 우리나라 노인의 衣文化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67) 李長春, "韓國의 福祉觀光政策開發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大學院, 1985, 참조,

“한복”을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食文化의 경우, 예를들면, 두부는 노인의 食文化에 適合性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두부는 노인의 치아와 상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두부食文化야말로 노인을 위한 食文化의 대표적 예탈 수 있다고 본다. 住文化의 경우,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住文化는 무어니 무어니해도 박거리模型이랄 수 있다. 박거리模型의 기능에 관하여서는 前述한 바와 같다. 老人의 놀이文化에 관하여서는 문제점이 山積해 있는 것 같다. 본시 우리나라에서는 놀이文化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까닭에<sup>68)</sup> 자연히 老人의 놀이文化도 例外는 아닌 것이다. 1989년 서울 特別市가 실시했던 조사에 의하면, 서울特別市の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것은 TV, 라디오청취가 4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둑·장기 등의 오락이 11.7%, 기도·염불 등의 종교활동이 7.3%, 독서가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69)</sup> 이와 같이 “TV, 라디오청취”, 그리고 “바둑·장기 등의 오락”의 비율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노인문화에 “앉은 文化”가 깔려 있다는 證左이다. 文化를 “앉은 文化”와 “선 文化”로 區分하여 볼 때, 미국의 老人文化는 “선 文化”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시, 미국의 문화의 속성에는 移動性(mobility)이 있거니와 미국노인들은 돌아다니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移動性은 觀光性으로 直結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노인들의 移動性을 하와이에서(1984) 目睹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하여 한국노인은 어려서부터 “앉은 文化”에 숙달되어진 탓인지, “앉은 文化”를 선호하는 경향이, 서울特別市の 調査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TV, 라디오청취”가 여가활동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TV와 라디오文化가 老人文化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TV·라디오 文化政策의 再照明이라는 과제가 대두되어야 한다. 특히, TV가 老人文化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한국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노인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sup>70)</sup> 따라서 TV文化와 老人文化와의 關係는 날이갈수록 深化될 것으로 예견된다.

아무튼, 앞으로 놀이文化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作業이 이뤄져서, 나아가서 老人을 위한 놀이文化 역시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앉은 文化”에서는 놀이文化開發의 限界性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선 文化” 方向에서 놀이文化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福祉觀光分野에서도 政策的인 配慮가 바람직하다. 작금, 이른바 孝道觀光이 선을 보이고 있지만, 호도관광은 대개 일반노인이 즐기는 관광이라는 경향이 있거니와, 福祉觀光은 불우노인이나 收容施設內에 있는 老人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요컨대, 老人文化를 <表Ⅲ-17>과 같이 세가지로 봤거니와, 그 세가지 중에서도 “老人을 위한 文化”야말로 老人文化중 제일 중요한 課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

68) 조선일보, 1990.5.21<5> : 年中시리즈 月曜기획 한국病<7>, 「먹고 마시기」뿐... 「놀이文化」가 없다.

69) 서울特別市, 「老人福祉政策樹立을 위한 調査研究」, 서울 : 서울特別市, 1989, p.98.

70) Richard H. Davis & James A. Davis, TV's Image of the Elderly (Lexington : D.C. Heath and Company, 1985), 참조.

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老人의 文化, 즉 老人文化의 實體는 무엇이나에 대한 천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끝으로, 老人에 의한 文化(Culture by the Aged)는 바람직스런(desirable)일에 속한다. 그것은 個人差의 結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文化를 창조하는데 一翼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老人에 의한 文化는 순수히 個人的 次元에서 이뤄지는 일이 허다하다. 따라서 老人에 의한 文化는 多樣性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個人差의 結果는 <表Ⅲ-17>에서와 같이, 二大要素, 즉 하나는 “좋아하는 일”과 그 둘은 “人間關係”에 의해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좋아하는 일”을 달리 표현하면 “취미”라고할 수 있겠으나, “취미”가 반드시 “좋아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뭏든,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갖는게 좋다. 그것도 어려서 갖일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The sooner, the better). 왜냐하면, 어려서 “좋아하는 일”을 갖게 되면 될수록, 그만큼 몸에 든실히 배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個人的 特性이 돋보이게 되는 법이다. 그 “좋아하는 일”이 人間關係와 關聯性을 맺게 되면, 그것은 보다 더 보람을 갖게 되어 갈 것이다. 예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傳授하는 일을 통해서 人間관계가 형성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日本老人의 경우, 盆栽가 老人文化의 創出物이라고 한다.<sup>71)</sup> 우리 주변에서도 盆栽를 통해서 鬪病生活에 成功한 事例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盆栽를 통해서 永生의 心氣를 배우게 되는 것 같다.

한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늙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事例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京璇할머니

金京璇憲머니는 71세에 文壇에 데뷔하여 소설가가 됐다.<sup>72)</sup>

△韓秉憲할아버지

韓秉憲할아버지는 73세의 의사로서 放通大를 졸업했다.<sup>73)</sup>

△金垓成할아버지

金垓成할아버지는 70세에 「먼 시간속의 실종」이라는 소설을 써내어 소설 베스트 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sup>74)</sup>

△申英姪할머니

申英姪할머니는 72세로 2년만에 「中一高졸업」, 그리고 1990년 大入 검정최고령자로 합격하였다.<sup>75)</sup>

71) 池井 望, “老年サブカルチャ論-「盆栽」をめぐって, 「高齢化社會と老人問題」ジュリスト増刊 総合特集 No.12, 有斐閣, 1978년 11월, pp.225~229.

72) 조선일보, 1989.11.11. <16>: 보따리장사때도 小説만 생각해.

73) 조선일보, 1990.3.31. <16>: 韓秉憲씨 「인간승리」.

74) 조선일보, 1990.5.9. <9>: 내게 文學은 피하고 싶은 毒歪.

75) 조선일보, 1990.5.15. <19>: 72세할머니 2년만에 「中一高졸업」.

위에 列擧한 예는 모두가 古稀를 지내면서 “좋아했던 일”을 뒤늦게나마 되살려 보자는 점에 있어서 共通點을 지니고 있어, 人生의 香氣를 풍기게 하는 것 같다. 文化主體인 人生의 香氣는 바로 文化의 香氣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金京淑할머니와 金竣成할아버지는 이른바 「老年藝術」(die Altenkunst)이라는 課題를 젊은이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 IV. 結 論

위에서, 먼저 老人에 대한 概念規定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老人의 特性을 4가지 視角, 즉, 生物學的 特性, 社會·心理的 特性, 住居形態로 본 特性 그리고 老人文化로 본 特性이라는 角度에서 고찰해 왔다.

무릇, 老人의 特性을 천착한다는 것은 두가지 側面에서 意義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의 側面은 老人을 관찰하여 老人問題를 研究하는 客觀的인 觀察者 또는 研究者들의 입장에서 우선은 老人의 特性을 熟知하여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뜻이 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老人 自身の 側面에서 본 見解할 수 있다. 老人 자신이 “知己”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老人의 特性을 認知할 필요가 있으며, 老人의 特性을 窺明함으로써, 老人은 자기에게만 유일하게 生起한다고 생각하는 “老化”를 一般化시킬 수 있는 慧眼을 갖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老人이 老人의 特性을 안다는 것은 順天者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老人의 特性論은 老人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 老化의 事實을 拒逆하거나 숨기는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숙연히 받아드리면서 거기에서 人生의 보람을 찾아보자는데, 老人의 特性論의 眞隨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

한편, 老人의 特性論을 크게 나누어 巨視的 接近方法(macroscopic approach)과 微視的 接近方法(microscopic approach)으로 편의상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老人의 特性을 一般化(generalization)시키는 接近方法이라고 한다면, 後者의 경우는, 老人의 特性을 個別化(individualization)시키는 접근방법이라고 하겠다. 이 論文의 접근방법은 두말 할 것 없이, 前者의 접근방법에 속한다. 前者의 접근방법을 취하게 되면, 一般化의 利點을 살려서 老人의 特性을 객관화(objectification)시킬 수 있으며, 老人問題를 總括的으로 把持하는 데 편리할 것이다. 이런 접근방법은 科學化(scientification)의 길을 志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巨視的 接近方法은 白沙場과 森林을 鳥瞰할 수는 있으나, 白沙場의 모래알은 볼 수 없으며, 森林의 나무(木)을 볼 수 없는 欠點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微視的 接近方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따라서 老人의 特性論에서도 巨視的 接近方法과 微視的 接近方法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老人問題에는 生의 敬畏라는 次元이 있기에, 더더욱 微視的 接近方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Luccille B. Bearon은 “Famous Aged”라는 論文을 통해서 미국의 著名老人을 소개하고 있다.<sup>76)</sup> 同論文에 의하면, 1981년 현재, 65~74세 노인 63명과 75세 이

76) 韓昌榮, 「留美漫筆」, 제주: 新亞文化社, 1990, pp.162~165.

상 노인 32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著名老人들은 한결같이, “끈질긴 努力家”(steady striver)이며 未來志向의 (futuier-oriented) 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주변에서는 끈질긴 노인, 強靱性을 지닌 노인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77)</sup>

심들 姜氏할망에 관한 傳說이라든지 列子の 愚公移山과 같은 強靱한 意志를 잘 나타내고 있는 金命獻 參判의 傳說 등이 있다.

김참판은 낙방을 해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아홉번 낙방하고 열번째 과거를 봤을 때는 나이가 여든한살이었다.

試紙를 받아든 金參判은 다음과 같이 썼다.

身年은 九九요, 落榜은 三三이라.

金參判은 不屈의 意志로 결국 合格했으나 때는 벌써 他界한 뒤였다 한다.

金參判은, 헤밍웨이(Ernest M. Hemingway)의 소설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sup>78)</sup>에서 등장하는 노인(Santiago)을 聯想케 한다. 헤밍웨이가 그 소설을 통해서 不屈의 意志를 갖고 있는 老人像을 묘사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老人像을 接近하기 위해서는 역시 微視的 接近方法을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老人의 特性論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巨視的 接近方法은 물론, 事例研究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微視的 接近方法도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提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이 論文에서 살펴본 老人性格類型論에서 圓熟型(mature)이 理想的 性格이라고 分析했다. 그리고 이런 類型이 育成되어지는 住居形態로서는 박거리模型이라고 하는 論旨을 展開했다.<sup>79)</sup> 연이어, 老人文化 中에서는 老人을 위한 文化(Culture for the Aged)의 必要性과 重要性을 천착해 봤다. 그 老人을 위한 박거리模型의 基盤(Boden)은 敬老思想이라는 점을 前提하면서 老人文化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살펴봤거니와, 앞으로 敬老思想과 老人文化를 調和롭게 融合시키면서 놀이文化를 啓發해 나아가야 하느냐가 老人文化의 課題일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課題를 풀어 나아가는 研究는 多多益善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積極적인 老人福祉政策이 期待되어진다.

77) 韓昌榮(1978), 前掲書, p.188.

78) 韓昌榮, 「美國老年學」, 제주:新亞文化社, 1990, p.255.

79) 同論旨는 「3세대아파트」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도 立證되고 있다. 즉, 보도(조선일보, 1990.9.17. <11>: 老부부-子女부부 83%이상 “만족”)에 의하면, 상계지구 3세대 가족형시범아파트(1988년말, 住公이 건축)의 모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동거형”, “인거형”, 그리고 “복층형”이다. 이들 모형중에서도 “박거리모형”과 유사한 “인거형”의 만족도가 노부부(97%), 자녀부부(86%) 2세대에 걸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Summary

A Study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Aged,

*Han, Chang-young*

This treatise is concerned about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d.

Firstly, the concept of the aged is defined from many aspects. But, 65 year old and over persons are generally regarded as the aged.

Second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d may be studied out in the viewpoint of four aspects as following.

1. aspect of biology,
2. aspect of socio-psychology,
3. aspect of family patterns,
4. and aspect of culture

To put it shortly, it is borne in upon me that so-called Bakgeori Model among family patterns is desirable for formation of Mature Model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d, and the culture for the aged should be created and developed from now on.